

〈기적을 불러온 큰 믿음 - 바디매오〉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2/25(주일) 설교 내용

마가복음 10:46-52

1. 예수님은 바디매오가 있는 곳을 그냥 지나가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바디매오의 이야기를 근거로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된 마태복음 20:30에 보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Jesus was going by)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나가시려고 한 것이죠.

만약 바디매오가 용기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가셨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매오는 자신의 겹옷을 벗어던지고,
과감히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는 소리, 더 나아가 그의 그 확고한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바디매오를 불러 내어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부르짖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2. 바디매오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것들이 몇가지 있었습니 다. 그것은 무엇이었으며, 만약 내가 바디매오의 입장이면 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에는 두가지 감수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 다.

① 주변 상황을 이겨내는 것

그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을 때, 주변 사람들은 꾸짖으며 그를 나무랐 습니다. 조용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매오는 그에 굴하 지 않고 더 큰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는 이렇게 주변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용기를 갖습니다.

② 겹옷을 벗어던지는 것

설교문에도 있지만, 당시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사람들만 합법적으로 구 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는 옷이 있었고, 그 옷은 구겹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증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매오는 지금 그 겹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 니다. 그는 자신의 생계 수단이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 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겹옷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만약 바디매오라면, 과연 이런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까요?
목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3. 만약, 지금 이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는냐?” 물으신다면, 우리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만약, 오픈하기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라 주저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차선적인 기도제목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엉뚱한 답변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답변을 존중해 주시고, 모임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